

온라인대학에서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른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 및 이들의 관계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의길[†] · 김윤정^{††}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대학의 성인 학습자들이 지각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습자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4학년도 2학기 국내 한 온라인대학 재학생 119명으로부터 수집된 인구학적 정보, 상호작용,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및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학업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자유게시판 활동에 참여한 집단에서 높았다. 둘째,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자유게시판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개입이 없이도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높았다. 셋째,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학습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학습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온라인 대학,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촉진활동, 학습만족도

Differences in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by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on learning satisfaction in an online university

Euikil Lee[†] · Yun-Jung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by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the effects of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Data including subjects' demographic information, interactions,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social presence of the course, and learning satisfaction were collected from 119 adult learners in an online university in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was higher in the higher-aged group or active group on intranet message board than the lower-aged group or inactive group on the board. Second,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increased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However, the active group on the board has shown the highest level of perceived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without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Thir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 and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while the variables affecting learning satisfaction were the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and social presence of the cours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structors' social interventions be provided systematically for those who are not active in social interaction to enhance their learning satisfaction.

Keywords : online university, 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social presence, social intervention, learning satisfaction

[†] 정 회 원: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부교수

^{††} 정 회 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15년 2월 2일, 심사완료: 2015년 4월 8일, 게재확정: 2015년 5월 1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은 교수자-학습자 간 시공간적 거리를 전제하는 학습공간이다. 원격에 위치한 학습자는 제반 학습절차를 파악하여 스스로 학습을 진행한다. 특히 면대면 교육에 익숙한 학습자는 비동시적 상호작용, 제한된 의사교환의 단서, 즉각적 피드백의 부족 등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수자 혹은 다른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와 불안감을 경험한다[1][2]. 적절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은 이들을 학습의 장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활한 학업수행을 방해한다.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소속감 고취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3][4]. 이는 온라인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느끼거나 표출하는 정도 즉,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높을 경우 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다[2][5][6][7][8].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강과목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보다 긍정적인 학습성파를 산출할 수 있다는 보고이다.

특히 몇몇 연구자들은 온라인에서 교수자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of instructor)’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사회적 실재감 관련 연구에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5][9][10]. 학습참여자 간 접촉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온라인 맥락에서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끌고 촉진하며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중추적이다. 온라인에서 역할 비중이 높은 교수자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학습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논리적 기반이다. 실제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보고된다[5][9][10].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연결고리 확보에 긍정적이면서 학습성파 산출에 대한 기여도가 사

회적 실재감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보다는 온라인 학습공동체로서 학습공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이들 연구는 학습자 변인, 수업설계 및 평가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변화 양상, 학습성과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탐색에 집중되어 있다 [2][5][6][7][8][10]. 반면, 사회적 실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한 교수 전략의 확인[11],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교수전략의 분류[1] 등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인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교수자가 일상에서의 개인적 감정을 공유하고 학습자들을 격려하며 교수자-학습자 간 래포(rapport) 형성을 위한 사회적 촉진행위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관련된 학습자 변인은 무엇이고, 2)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3)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자 관련 변인과 과목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사회적 촉진을 위한 교수자 역할

온라인에서 학습자가 다른 학습 참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온라인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의사교환의 단서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학습자가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감은 제반 학습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1][3][8][10].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즉시성 향상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학습자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9][12].

즉시성(immediacy)은 사람 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을 의미한다[13]. 즉시성은 직접적인 질문이나 관심, 격려 등의 언어적 행동과 목소리 톤,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교환 단서의 사용이 제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은 온라인 맥락에서 학습자가 사회적 연결고리를 느끼고 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촉진 기제로 여러 가지 구체적 행동전략을 제안한다[1][9][11].

먼저, Whipp & Lorentz[11]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활동으로 총 11가지의 구체적 행동유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교수자의 사회적 지원활동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① 호의적 표현의 사용, ② 학습자와의 공적·사적 상호작용, ③ 집단 역동성 및 과정에 대한 관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Plante & Asselin[1] 역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18가지의 구체적 역할을 제안한 바 있다. Schutt, Allen, & Laumakis[9]는 즉시성을 고려한 교수자의 비디오 및 오디오 강의가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매체 유형보다 즉시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 행위의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발견은 교수자가 관심과 공감, 감정적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1][11][15]와 긍정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교수자가 취하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촉진행위의 유형과 이것이 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심리적 근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행위가 사회적 실재감이 아닌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 지을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2.2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그 개념적 특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동시적 온라인학습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를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of instructor) [10][16],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5] 등으로 명명할 뿐 특별한 개념 규정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면서 그 대상을 교수자로 한정지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의미와 역할은 모개념인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학습자가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느끼고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Garrison[4]은 사회적 실재감을 학습자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인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면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습자의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비언어적 의사교환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학습공간에서 학습자가 인지 혹은 표출하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성은 다른 학습참여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결정짓고 학습과정에 대한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적 실재감은 보편적으로 학습성과[5][6][7][8][10]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높을 경우 안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학습이 진행되고 이것이 학습에 대한 만족도에 기여한다는 입

장이다. 또한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자의 성, 연령, 온라인 학습경험과 같은 학습자 변인[5][6][7][10], 평가방식[8] 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온라인토론에서의 상호작용 정도가 사회적 실재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연구결과[6][7]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습자 특성과 학습활동 관련 지표가 상호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지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제한적이다. 사회적 실재감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 수업설계, 교수자의 수업활동 등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관련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나, 사회적 실재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성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5][9][10]. 예컨대, Swan & Shih[10]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동료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각된 학습결과와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실재감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성연[5] 역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토론효과, 학습효과, 만족도 등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성, 연령, 온라인 학습경험 등 학습자 특성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습자 관련 변인이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볼 때,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대상만 다를 뿐 개념적으로 사회적 실재감과 유사하며 학습성공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습자 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지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명칭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모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실재감을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으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온라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의 B강좌를 수강하는 293명의 수강생 중 별도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강좌는 수강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하는 학교 내규에 의하여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분반에는 수강생 이름의 가나다 순이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A, B반의 수강생 151명, 144명 중 각각 50명, 69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두 반의 수강생은 모두 13개 차시의 동일한 코스웨어를 수강하고, 2회의 정규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과 월 1회의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자료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수강생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2주 동안 교수자가 제공한 주제에 따라 진행된 토론실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분반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여성이 79%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연령, 온라인 학습경험(누적 수강과목수로 확인)) 및 상호작용(자유게시판 글수, 토론실 참여글수) 관련 수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상호작용

	A반		B반		합계	
	M	SD	M	SD	M	SD
연령	43.45	8.43	44.27	10.81	43.93	9.87
누적 수강과목수	23.27	10.97	21.47	11.51	22.21	11.28
자유게시판 글수	.73	1.08	1.87	2.17	1.40	1.88
토론실 참여글수	1.96	1.46	1.93	1.27	1.94	1.34

3.2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반을 통제집단, B반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처지를 제공하였다. 먼저 학기 초에 공지사항을 통해 교

수자가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하여 쪽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습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리고 분반이 완료된 9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쪽지와 이메일을 실험집단 전체 수강생에게 전송하였다. 실험집단에 전송한 총 8개의 메시지 가운데 2개는 연구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출석 관리용 메시지였으며, 나머지 6개는 짧은 시와 정서적 지지 혹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교수자의 생각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셔야지요.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 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마음먹으세요. 잠도 못자고 걱정만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라 이제는 좀 고쳐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 등과 같은 내용이다. 반면, 통제집단에는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출석관리용 메시지를 9월 말과 11월 초순에 각각 1차례씩 모두 2차례만 제공하였다.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학습만족도 그리고 학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습활동과 관련된 변인이었다.

먼저, 앞의 세 변인에 대한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각 변인에 대한 학습자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첫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Swan & Shih(2005)에 의하여 개발된 ‘사회적 실재감 설문지’에서 전자에 해당되는 5개 문항, 후자에 해당되는 10개 문항이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번역 사용되었다. 문항의 구체적 사례는 전자에 ‘이 과목에서 교수님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후자에 ‘내가 이 강좌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사후검정 신뢰도 수준(Cronbach alpha)은 각각 .91, .86이었다.

둘째, 학습만족도는 이 대학 강의평가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전체적으로, 이 강좌는 유익했다’ 등이며 사후검정 신뢰도 수준은 .95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성, 연령, 온라인 학습경험이 선정되었으며 학습활동으로는 자유게시판과 토론실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하여 연령과 온라인 학습경험은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연령은 44세 이상 및 미만, 온라인 학습경험은 22과목 이상 및 미만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3.4 연구절차 및 자료의 분석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가 시작된 13주차 강의 개시일 전까지 두 분반의 수강생에게는 연구진행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11월 2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 비밀 보장 원칙 등이 안내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t-검증과 이원분산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통계처리에는 SPSS 12.0+ 한글판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관련 학습자 변인

사용된 학습자 변인 및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관계를 갖는 변인은 연령과 자유게시판 활동이었다. 44세 이상 집단의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M=4.51, SD=.54)은 44세 미만 집단(M=4.29, SD=.64)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t(118)=-2.1, p<.05$). 자유게시판에서 1회 이상의 활동이 있었던 연구대상자(M=4.52, SD=.52) 역시 전혀 활동이 없었던 연구대상자(M=4.19, SD=.66)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였다($t(118)=-2.1, p<.05$). 성, 온라인에서의 학습경험 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토론실 활동은 참여횟수의 분포가 불균등하여 본 분석에 활용되지 않았다.

<표 2>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 관련 학습자 변인 탐색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			
		M	SD	N	t
성	남	4.35	.65	25	-.47
	여	4.42	.58	94	
연령	44세미만	4.28	.64	55	-2.1*
	44세이상	4.51	.54	64	
온라인 학습경험	22과목미만	4.37	.57	59	-.55
	22과목이상	4.43	.62	60	
자유게시판 활동	활동없음	4.19	.66	42	-3.0**
	1회이상활동	4.52	.52	77	
계		4.40	.59	119	

- $p < .05^*$, $p < .01^{**}$

-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 -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4.2 사회적 촉진활동과 주요 학습자 변인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차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연령과 자유게시판 활동이 교수자가 제공한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라 보이는 차이는 이원분산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표 3> 사회적 촉진활동과 연령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연령	통제집단		실험집단	
	M	SD	M	SD
43세이하	4.16	.67	4.38	.60
44세이상	4.33	.64	4.62	.44
평균	4.25	.66	4.51	.53

먼저, 사회적 촉진활동과 연령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기술통계에서 사회적 촉진활동을 받은 실험집단의 평균은 44세 미만 집단과 44세 이상 집단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특히 실험집단의 44세 이상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M=4.51, SD=.53) 통제집단의 44세 미만에서 가장 낮았다(M=4.16, SD=.67).

두 변인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갖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표4>와 같다.

<표 4> 사회적 촉진활동과 연령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df	MS	F
사회적 촉진활동	1	1.81	5.46*
연령	1	1.25	3.75*
사회적촉진활동x연령	1	.04	.11
오차	115		

- $p < .05^*$

이 분석에서 사회적 촉진활동(F=5.46, $p < .05$)과 연령(F=3.75, $p < .05$)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갖는 주효과는 모두 존재하였다. 사회적 촉진활동을 받은 실험집단, 연령이 높은 집단이 갖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수준의 평균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자유게시판 활동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는 <표 5>와 <표 6>에 정리되었다.

<표 5> 사회적 촉진활동과 자유게시판 활동에 따른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 기술통계

자유 게시판	통제집단		실험집단	
	M	SD	M	SD
활동없음	4.05	.68	4.50	.51
활동있음	4.54	.49	4.52	.53
평균	4.25	.65	4.5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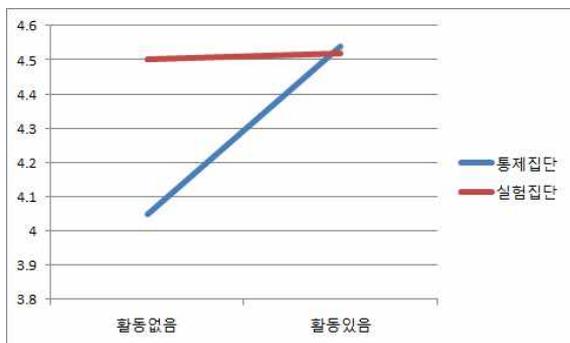
먼저, 통제집단에서는 자유게시판 활동 여부에 따라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실험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게시판 활동을 한 연구대상자의 평균(M=4.54, SD=.49)은 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M=4.05, SD=.68)보다 .49 이상 높았다. 자유게시판 활동을 한 연구대상자들이 교수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자유게시판에서의 활동 여부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각각 M=4.52(SD=.53), M=4.50(SD=.51)으로 거의 동질적이었다.

<표 6> 사회적 촉진활동과 자유게시판 활동에 따른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df	MS	F
사회적 촉진활동	1	1.82	5.46*
자유게시판 활동	1	1.46	4.56*
사회적 촉진활동 x 자유게시판	1	1.29	4.06*
오차	115	.32	

- $p < .05^*$

두 변인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사회적 촉진활동($F=5.46, p < .05$)과 자유게시판 활동($F=4.56, p < .05$)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하여 모두 주효과를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종속변인에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F=4.06, p < .05$). 이는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자유게시판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유게시판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실험집단의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지만 자유게시판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통제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적 촉진활동과 자유게시판 활동의 상호작용 효과

4.3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만족

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독립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이 상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는 앞선 분석과 선행연구에서 이들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 자유게시판 활동, 사회적 촉진활동, 과목전반에 대한 실재감이 포함되었다(<표 7> 참조).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연령					
2. 자유게시판 활동	.04				
3. 사회적 촉진활동	.04	.30**			
4. 교수자 SP	.16	.19*	.22*		
5. 사회적 실재감	.03	-.05	.05	.54***	
6. 학습만족도	.09	-.10	-.03	.53***	.46***

- $p < .01^*$, $p < .001^{***}$

먼저, 학습만족도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r=.53, p < .001$),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r=.46,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유게시판 활동과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은 학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습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β)
	B	표준오차	
자유게시판 활동	-.05	.02	-.15
사회적 촉진활동	-.13	.10	-.10
교수자 SP	.48	.09	.48***
사회적 실재감	.21	.10	.20*

- $R^2=.34$ ($n=119, p < .001$) - $p < .05^*, p < .001^{***}$

따라서 학습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에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게시판 활동, 사회적 촉진활동,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변인은 '입력'으로 투입되었다. 각 변인별 VIF는 각각 1.15, 1.13, 1.55, 1.45로써 이들 변인을 통한 모

형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본 방정식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의 변량 중 34%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였다($R^2=.34$, $F(4, 115)=16.49$, $p<.001$). 상호 다른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준화계수에서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beta=.48$, $t(114)=5.18$, $p<.01$),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beta=.20$, $t(114)=2.21$, $p<.05$)이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였다. 자유게시판 활동과 사회적 촉진활동의 영향력은 본 회귀방정식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방정식에 포함된 4개의 독립변인이 연구대상자의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의하여 대부분 설명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높은 수준에서 학습만족도와 의미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공간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효과적 학습을 촉진시킬 요인으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관련된 학습자 변인을 확인하고,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른 변화, 학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관련이 있는 학습자 변인은 연령과 자유게시판 활동 여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연구대상자들은 낮은 집단보다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5][6]와 배치된다. 하지만, 연령이 높은 학습자들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하고[17][18], 모바일 학습도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는 연구결과[19]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연구대상자들의 학습의지와 관심이 교수자에 대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자유게시판 활동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 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게시판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다. 연구대상자의 참여의지와 적극성이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향상에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지각한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이 제공된 실험집단의 경우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의미를 담은 교수자의 메시지가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 수준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16]. 다만, 이 관계는 연구대상자들의 자유게시판 활동 유무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인 학습자들은 교수자 개입에 영향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개입 없이도 높은 수준의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보였다. 이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된다[15][17][20][21].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꺼리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과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변인이 자유게시판 활동 이외에 없었다는 것은 이 활동이 교수자에 대한 학습자의 사회적 신뢰감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은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함께 학습만족도의 변량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학습만족도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은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보다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10]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 변인 중 하나인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은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과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설명하는 학습만족도의 변량 중 일부가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자유게시판 활동과 같은 상호작용이 사회적 촉진활동과 맺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역시 학습만족도의 변량이 이들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설명될 여지를 보이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적 실재감을 교수자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으로 세분화하여 이것이 온라인 수업에서 다른 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온라인 교육의 실제와 연결지어 볼 때 교수자의 사회적 촉진활동이 교수자에 대한 학습자의 친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는 현장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실증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대학의 특정 전공 수강생을 연구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교육맥락에 일반화시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들에게는 교수자와의 래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수업처치의 역할 및 다른 연구결과 해석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Plante, K. & Asselin, M. E. (2014). Best practices for creating social presence and caring behaviors online.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5(4), 219-223
- [2] Shea, P., Hayes, S., Vickers, J., Gozza-Cohen, M., Uzuner, S., Mehta, R., Valchova, A., & Rangan, P. (2010). A re-examination of the CoI framework: A social network and content analysis.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3, 10-21.
- [3] Caudle, A. (2013). Using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o establish teaching and social presences within a hybrid community mentor teachers. *Adult Learning*, 24(3), 112-119
- [4] Garrison. R. (2009). Implications of online learning for the conceptual development and practice of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23(2), 93-104.
- [5] 권성연(2011). 온라인 학습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자 특성, 토론효과 및 학습효과 인식, 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42(3), 55-82
- [6] 강명희, 정혜윤, 김민정, 기혜정, 엄소연, 박효진(2009). 웹기반 문제중심학습에서 상호작용과 성취도에 대한 학습실재감의 예측력 검증. *교과교육연구* 13(4), 937-960.
- [7] 이의길(2010). 온라인토론의 주제 유형에 따른 인지적 학습참여와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4), 505-523
- [8] Picciano, A. (2002). Beyond student perceptions: Issues of interaction, presence and performance in an online cours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6(1), 21-40.
- [9] Schutt, M., Allen, B., & Laumakis, M. (2009). The effects of instructor immediacy behavior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The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10(2), 135-148.
- [10] Swan, K., & Shih, L. (2005). O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social presence in online course discussion. *JALN*, 9(3), 115-136.
- [11] Whipp, J. L., & Lorentz, R. A. (2009). Cognitive and social help giving in online teaching. *Education Tech Research Dev*, 57, 169-192.
- [12] Guerrero, L., & Miller, T. A. (1998). Associations between nonverbal behaviors and initial impressions of instructor

competence and course content in videotaped distance education courses. *Communication Education*, 47(1), 30-42.

- [13] Mehrabian, A. (1967). Attitudes inferred from non-immediacy of verbal communic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 294-295.
- [14] Christophel, D. M., & Gorham, J. (1995). A test-retest analysis of student motivation, teacher immediacy, and perceived sources of motivation and demotivation in college classes. *Communication Education*, 44, 293-306.
- [15] 김수현, 김민정(2006). 웹기반 동기적 토론에서 토론촉진전략의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 상호작용, 만족도,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3), 299-321.
- [16] Wise, A., Chang, J., Duffy, T., & del Valle, R. (2004). The effects of teacher social presence on student satisfaction, engagement, an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1(3), 247-271.
- [17] 김현아, 김현진(2011).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7(3), 51-78.
- [18] 임연옥 (2007).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 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11(2), 205-219.
- [19] 이의길(2014).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모바일러닝 활용실태 분석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모바일러닝 관련 인식의 영향 탐색.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3), 65-74
- [20] Lear, J. L., Isernhage, J., LaCost, B. A., & King, J. (2009). Instructor presence for web-based classes. *Delta Phi Epsilon Journal*, 51(2), 86-98.
- [21] 한동욱, 강민채(2014). SNS를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494-503.



이의길

1997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2003 미국 SUNY at Albany 교육공학전공(Ph. D.)

2004~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온라인학습, 모바일러닝, 수업설계, 성인학습자

E-Mail: elee@cuk.edu



김운정

199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 석사)
2005 영국 Univ. of Bath 사회복지 및 정책 (Ph.D.)

2005~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온라인학습, 돌봄인식과 교육, 노인 및 영유아 돌봄 정책

E-Mail: lanca@cuk.edu